

2025. 12. 19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12월 1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

시민대학본부장

김혜영

02-739-4459

미래디자인팀장

김지혜

02-442-6830

담 당 자

김지혜

02-442-6837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 쪽수: 4쪽

관련누리집
(메뉴)

<https://slei.seoul.kr>
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-
프로그램 - 서울시민대학 - 새소식

딥페이크·피싱 예방도 '해치와 함께'...서울시 '디지털 페르소나 유형 테스트' 공개

- 나의 온라인 행동 유형 진단하는 '디지털 페르소나 테스트', 18일(목)부터 누구나 무료 참여
- 딥페이크 피싱 등 최신 이슈 다룬 애니메이션 '디지털 유니버스' 5편과 연계해 맞춤형 학습
- 시 대표 캐릭터 '해치와 소울프렌즈' 세계관 활용해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시민성 콘텐츠 제공
- 유형 테스트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서, 애니메이션은 서울시민대학 유튜브 통해 공개

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(원장 한용진)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은 18일(목) 시민들의 디지털 이용 성향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'디지털 페르소나 유형 테스트'를 공개했다. 최근 딥페이크, AI 저작권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자신의 디지털 이용 습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.

☐ 이번 테스트는 서울시 대표 캐릭터 '해치와 소울프렌즈' 세계관을 접목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.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활용이나 앱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받는 상황 등 일상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15개의 질문에 답하면,

해치·현무·주작·백호·청룡 등 5가지 유형(페르소나) 중 자신의 디지털 성향이 어디에 속하는지 진단받을 수 있다.



- 진단 결과는 유형 확인에 그치지 않고, 각 페르소나에 최적화된 애니메이션 ‘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디지털 유니버스’로 연결된다. 이를 통해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‘디지털 시민성’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.
- ‘디지털 시민성’이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행동하고, 정보를 비판적으로 습득하며, 타인을 배려하며 소통하는 역량과 태도를 의미한다. 이번에 공개된 테스트는 시민 스스로 본인의 디지털 시민성을 점검하고,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.
- 연계된 애니메이션은 딥페이크, 혐오 표현, 피싱 예방 등 최근 대두된 5가지 디지털 사회 문제를 5개 서울시 캐릭터들의 특성과 연결해 이야기로 풀어냈다.
- 해치와 소울프렌즈 캐릭터별 에피소드는 ▲해치 편(허위정보·딥페이크 판별) ▲현무 편(개인정보 보호·접근 권한) ▲주작 편(온라인 갈

등·혐오 표현) ▲백호 편(계정 보안 강화·피싱 예방) ▲청룡 편(디지털 웰빙)을 주제로 구성됐다.

-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제작되었으며, 서울시민대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.

- ‘디지털 페르소나 유형 테스트’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(slei.seoul.kr)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, 애니메이션 전편은 서울시민대학 유튜브 채널(youtube.com/@seoulsimin)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-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“시민들이 다소 어렵고 무겁게 느낄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K-콘텐츠 세계관 방식에 녹여 친근하게 풀어냈다”며, “앞으로도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1. ‘디지털 페르소나 유형 테스트’ 화면 1부

2. ‘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디지털 유니버스’ 애니메이션 화면 1부. 끝.

